

發表要旨

1972-78

討論「韓國의 金屬活字」

1972. 7. 1

總說

서울大醫大 名譽教授 金斗鍾

오늘 韓國科學史學會의 討論題目은 「韓國의 金屬活字」라고 하였으나 그 範圍가 너무 넓으므로 高麗時代에 使用된 金屬活字로 볼 수 있는 鑄字를 中心으로 하여 近世朝鮮 初期의 鑄字印本에 이르기까지의 活版印刷術에 관한 事實을 主題로 하기로 하였다.

高麗時代의 鑄字印書에 관한 文獻으로는 現在 우리들이 알고 있는 6種의 資料를 들 수 있는데 그 中の 4種은 鑄字印本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의 2種은 鑄字印書에 관한 行政機構를 論한 것이다. 4種의 印本은 鑄字로써 印出되었다는 古今詳定禮文 鑄字本の 重刊本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大英博物館에 收藏된 標題 句解孔子家語, 꾸랑의 韓國圖書誌補遺에 採錄된 鑄字로 印出되었다는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다. 本心體要節은 最近에 그 實物이 파리에서 열린 「책의 歷史」의 展示場에 陳列되어서 많은 物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우리들이 이미 다 아는 事實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2種은 鄭道傳의 三峰集에 收錄된 鑄字를 保管코자 하는 書籍舖와 高麗史, 百官志에 刻려 있는 恭讓王 4年(1392年)에 鑄字印書를 掌管하던 書籍院이다.

高麗時代의 鑄字印書에 관한 資料로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文獻도 있으리라고 믿지만 이미 앞에서 쓴 6種의 資料만으로도 이 時代에 鑄字印本들이 상당히 實用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推想할 수 있다.

그런데 鑄字印本에 관하여 隣接 大陸인 宋의 仁宗 慶歷年間(高麗靖宗 7年 1041年, 高麗文宗 2年 1048年)

에 畢昇이 膠泥活字로써 印書하였다는 것이 沈括의 夢溪筆談에 明白히 記혀 있다. 그러나 羅把玉은 泥는 印刷하기가 不可能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胡適도 「膠泥는 火燒하여 字를 만든 것은 情理에 合한 것 같지 않다. 아마 畢昇의 所用은 鉛類일 것이다.」라는 曖昧한 推定을 내리고 있으므로 膠泥活字가 實用的 效果를 드러내지 못한 것만은 疑心할 바 아니다. 그 후 明初頤에 이르러 錫活字를 使用하게 된 것은 確實하다. 元代에는 王禎의 農書(卷 22)에 木活字로써 印書하였다는 記錄이 보이나 그것이 널리 實用된 것은 아니고 一時의 使用에 限된 것이나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그리고 西歐에 있어 獨逸人 구텐베르크가 發明하였다는 金屬活字도 1430年頃이므로 高麗보다 거의 200餘年이나 뒤진다. 高麗는 金屬活字를 世界에서 가장 먼저 發明하였을 뿐 아니라 널리 實用해온 先驅者로서 그 榮譽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本鑄字가 金屬으로 된 것이 아니고 木材로 된 鑄字였으리라는 疑問을 갖게 된 것이다. 그 理由로서는 高麗高宗 26年 己亥(1239年)의 鑄字本の 重刊本으로 傳하는 南明泉和尚頌證道歌는 印本の 字體가 大小 고르지 않으며 字形에 있어서도 金屬活字로 된 原本에 依據된 것이라고 斷定을 내리기에는 어려운 要素가 內包되어 있어 그 原刻本은 金屬活字가 아니고 木活字로 된 印本이었으리라는 것을 推定하고 있으며 또는 李太祖 4年 乙亥(1395)에 書籍院에서 白州知事 徐贊이 만든 刻字로써 大明律直解百餘本을 印出頒布하였다는 것이나 太祖 6年에 頒布한 開國原從功臣錄 같은 貴重한 文獻들이 木活字로 되어 있다는 등등의 點을 들고 있다. 그리고 木活字를 鑄字라고 쓰게 된 것은 高麗高宗 6年에 金屬活字를 鑄造할 計劃을 세웠으나 兵亂으로써 高家 15年 6월에 首都를 開城으로부터 江華에 옮기게 된 後로 物資의 窮乏으로 因하여 金屬活字를 鑄造하지 못하고 木刻活字를 만들어 亂中에 흩어져 버린 書籍들을 應急의 補充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당시에 그 活字들을 처음에 計劃하였던 金屬活字인 鑄字의 이름

을 그대로襲用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主唱하는 이도 있다.

그러므로 本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資料는
現在 프랑스 파리의 「책의 歷史」의 陳列場에 展示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그 印本の 字體, 字
形, 字劃 등을 嚴格하게 鑑定하기 위하여 그 分野의
專門家를 現地에 派遣하는 이외에는 다른 方法이 없다
고 생각된다.

文化史的 側面

延世大 教授 孫 寶 基

1. 1091 「宣宗 8年 6月 丙午 李資義等還白宋奏云
帝聞我國書籍多好本」-〈高麗史〉 10.23 a 256
2. 1101 「制以秘書省文籍板本委積損毀命置書籍鋪于
國子監移藏之以度摹印」-〈高麗史〉 11.26b
3. 1102 吾東方獨未之行 今始制鼓鑄之法 芝以所鑄錢
一萬五千貫-〈高麗史節要〉 6.45 ab
4. 新印詳定禮文跋尾 代晉陽公行
「……而有家藏一本得存焉豫然後益諳先志, 且幸其
不失遂用鑄字, 印成二十八本, 分付諸司藏之」-〈東
國李相國後集〉 卷十一(1234-1241, A.D.)
5. 「天南明證道歌者, 實禪文之樞要也, 故後學參禪之
流莫不由斯而入外堂觀奧矣, 然則其可閉塞而不傳通
乎, 於是募工重彫鑄字本以壽其傳焉, 時己亥(1239.
A.D.) 九月上旬, 中書合晉陽公崔怡 謹誌」-〈南明
泉和尚頌證道歌〉刊記
6. 「……近世又 鑄錫作字, 以鐵條貫之作行, 嵌於鹽
內介行印書…」 皇慶 癸丑(1313 A.D.) 自序一王楨
撰〈農書〉後記
7. 「宣光 7年 丁巳 7月(1377) 淸州牧外 興德寺 鑄
字印施」-〈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8. 「四年置書籍院, 掌鑄字印書籍…」-〈高麗史〉 卷七
七百官志諸司都監各色書籍店(1392 A.D.)
9. 「初置書籍院, 掌鑄字印書籍」-〈高麗史節要〉 卷三
五, 恭讓王 四年正月條
10. 「…其書滿架充棟…」-〈三峯集〉 卷一置書籍鋪詩
11. 「…功既告訖 付書籍院, 以白州知事徐寶所造刻字
印出無慮百餘本, 而試頒行, 庶不負欽恤之意也, 時
洪武乙亥二月…識(1395 A.D.)」-〈大明律直解〉跋文
12. 〈開國原從功臣錄卷〉(沈之白)
「洪武三十年(1397 A.D.)十月 日」

Analysis of composition of a Korean type in the

collection of the East Asiatic Library.

Made by Mr. George Gordon, Spectrographer,
Mineral Techn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March,
1956.

Cu	ca. 84%
Pb	7%
Sn	7%
Zn	1%
Fe	0.1%
Bi	0.001%
Si	0.01%
Ni	0.05%
Ag	0.01-0.005%
P	not detected —less than 0.05%

書誌學的 側面

成均館大 副教授 千 惠 鳳

前略

麗代的 鑄字에 관한 記錄中 實物이 傳存되고 있는
資料는 宣光 7年 即 禑王 3年(1377) 刊行의 「白雲和
尚抄錄直指心體要節」뿐이다. 이것이 파리에서 發見된
며칠後 國立中央圖書館에서도 같은 書名의 冊이 나타
났다. 그 刊行事項을 보면 白雲和尚이 1372年 壬子에
抄錄手書한 稿本을 6年後인 宣光 8年 戊午 6月에
驪州 北쪽 慧月山 驚巖寺에서 開板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같은 해 7月 같은 寺刹에서, 같은 刻手에 의해 刊
行된 同 和尚의 高麗本 「白雲和尚語錄」과 比較해 본
結果 後刷本으로 鑑定되었다. 木版本刊記에는 「淸州牧
外興德寺鑄字印施」의 記錄이 전혀 보이지 않고 「書員
式菴禪和天旦」이 刻入되어 있는 事實에 비추어 이것은
1年前에 刊行된 淸州本을 그대로 覆刻한 것이 아니고
書寫員이 새로 板下本을 써서 刊行한 異版本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冊의 刊行은 相互 關聯이 없기
때문에 木版本을 土臺로 한 淸州本의 形態의 特徵의
推定은 期待할 수 없다.

그러던 중 6月 23日 파리의 刊記를 包含한 紙葉
2面의 縮小書影 1枚가 文化財管理局에 郵送돼 왔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그 形態의 特徵을 鑑定할 수 있
었다.

- 1) 匡部の 四周가 固着된 單邊이고, 界線이 匡部の
上下邊에 固着돼 있다.